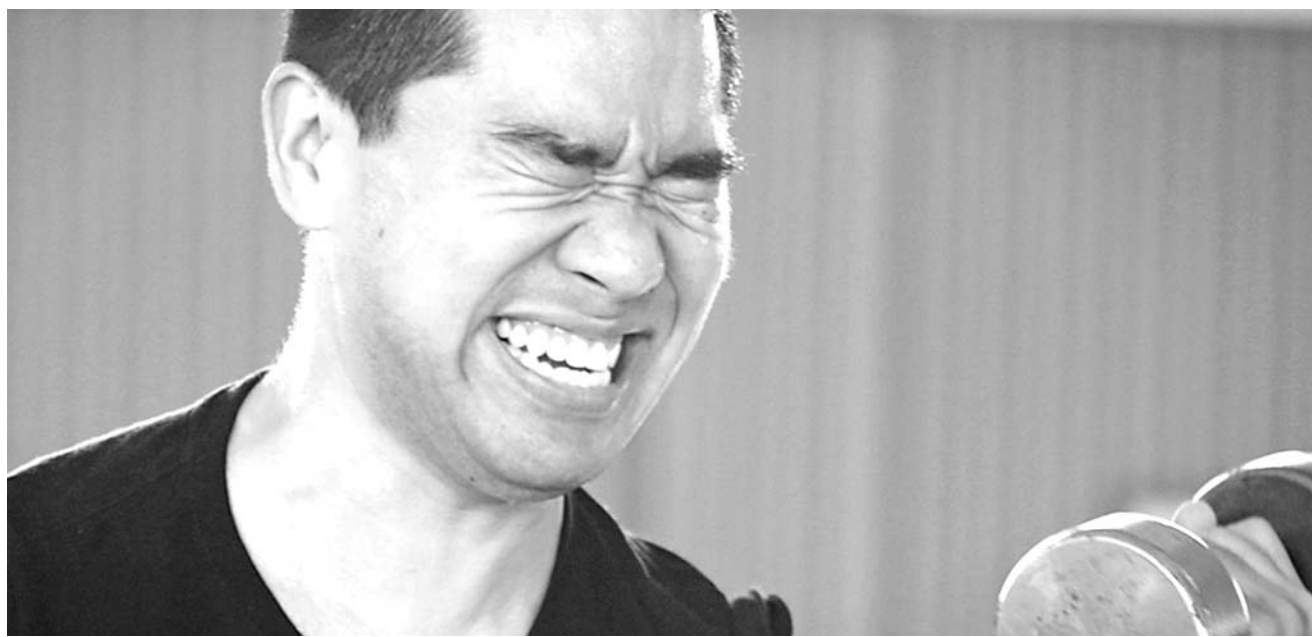


B급 코미디 '튼튼이의 모험'

고봉수 감독, 제작비 2천만원 '가성비 갑'
함평중 레슬링 선수단 이야기... 21일 개봉



하고 우직하게 다가온다.

5년간 레슬링을 배웠지만 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총길' (김충길 분)은 폐부 직전인 대풍고 레슬링부의 마지막 남은 선수다.

총길은 체육관을 지키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전업한 코치 '상규' (고성완 분)와 엄마를 고향 필리핀에 보내주기 위해 마노동을 시작한 친구 '진권' (백승환 분)을 찾아가 운동을 계속하자고 조른다.

총길의 진심이 통했는지, 상규의 간절한 로비가 통했는지 학교는 레슬링부의 전국체전 예선 출전을 허락하고 여기에 진권의 여동생을 보고 한눈에 반한 불량 씨를 블랙타이거의 멤버 '혁준' (신민재 분)까지 레슬링부에 가세한다.

기세가 오른 대풍고 레슬링부는 예선 1승이라는 소박한 목표 달성을 위해 2주간 최후의 지옥훈련에 돌입한다.

제목 '튼튼이의 모험'은 고 감독이 평소 좋아하던 인디 그룹 크라잉넛의 노래

'튼튼이의 모험'의 가사가 이 작품의 이야기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에 붙었다고 한다. "만화영화도 아니고 그건 안 된다"는 고 감독 어머니의 강한 반대에도 말이다.

고 감독은 제작노트에서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영화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개봉일은 21일. 15세 이상 관람가. /연필뉴스

2016년 B급 감성의 코미디 '델타 보이즈'로 주목받은 고봉수 감독의 후속작 '튼튼이의 모험'이 정식 개봉한다. 지난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무주산골영화제·정동진독립영화제·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서울독립영화제·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등을 거치며 입소문을 탄 작품으로 약 1년 만에 상업 영화관 스크린에 걸린다.

'튼튼이의 모험'은 한때 레슬링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남 함평중학교 레슬링 선수단의 이야기에 바탕을 뒀다.

이 영화의 순수 제작비는 불과 2,000만 원. 지난해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순제작비가 약 19억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100분의 1 수준이다.

활영 직전까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고봉수 감독이 연출·프로듀스·촬영·편집까지 1인 4역을 맡았고 주연 배우들이 공동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작 '델타 보이즈'에 참여한 김충길, 백승환, 신민재 등 '고봉수 사단'이 주연 배우로 참여했으며, 제작비 사정상 몇몇 전문 배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연자를 영화의 배경인 함평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고 감독의 지인으로 채웠다.

실제로 주연급인 레슬링부 코치 상규 역은 서울 시내버스 7211번 운전기사이자 고 감독의 친삼촌인 고성완 씨가 맡아 전문 배우 뺀치는 연기력을 과시했다.

고봉수 감독이 아저씨 역은 촬영장소 섭외 중 만난 실제 고봉수 사장이 맡아

줬고, 슈퍼 주인, 치킨집 주인, 경찰관 역시 실제 가게 사장고 경찰관이 맡아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고 감독은 배우가 아닌 이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 상황만 전달한 후 카메라만 두고 숨어있었다고 한다. 투자를 받기 위한 대본은 있었지만 실제 촬영은 대부분 애드리브로 진행됐다고.

없는 예산을 쥐어짜 만든 영화지만 가격 대 성능비는 그야말로 극강이다. 평균나이 33.3세의 주연 배우들이 연기한 고등학생 캐릭터가 곳곳에서 웃음 폭탄을 터뜨리고 '좀 노는' 고등학생이 실제 할 법한 차진 대사가 귀에 착 달라붙는다.

무엇보다 아무런 백이 없고 실력도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전국체전 예선 출전을 위해 애들배우하는 모습이 순수



'쥬라기 월드2' 개봉 첫날 100만 돌파

오프닝 새 역사 기록... '어벤져스3' 뛰어넘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하 쥬라기 월드2)이 사상 처음으로 개봉 첫날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첫날인 6일 118만2,374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하 어벤져스3)가 세운 기존 최대 오프닝 스퀵어(98만52명)를 경신한 것이다.

'쥬라기 월드2'는 개봉 첫날 1,931개

스크린을 확보해 스크린 점유율 36.9%를 기록했다. 상영점유율은 57.1%, 총상영횟수는 1만473회였다.

'어벤져스3'가 스크린 2,460개로 시작한 데 비하면 500개 이상 적은 스크린으로도 '어벤져스3'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는 개봉 전날 사전 예약한 표가 60만 장을 넘어선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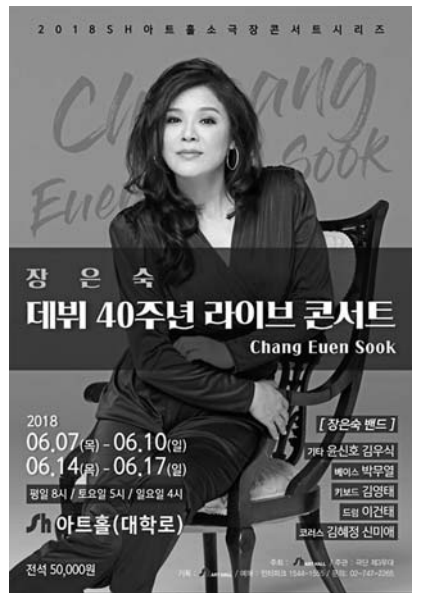
'쥬라기 월드2'는 2015년 개봉해 554만6,792명을 불러들인 '쥬라기 월드' 속편으로, 전편 주인공 오웬과 클레어가 화산 폭발로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쥬라기 월드'로 향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조진웅·류준열 주연 범죄 액션 영화 '독전'은 전날 23만520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으나 전날 개봉한 '쥬라기 월드2'에 자리를 내줬다.

'독전'은 아시아 최대 유행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펼치는 암투와 추격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로 흥풍 거장 두치평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마약전쟁'을 리메이크했다.



'춤 추어요' 장은숙 소극장 공연

데뷔 40주년 기념...오는 17일까지 SH아트홀

1970년대 히트곡 '춤 추어요'로 사랑받은 가수 장은숙(61)이 데뷔 40주년을 맞아 소극장 공연을 개최한다.

7일 공연기획사 주다컬처에 따르면 장은숙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SH아트홀에서 데뷔 40주년 라이브 콘서트를 펼친다.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이 매력인 장은숙은 1977년 동양방송(TBC)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탄생'에서 대상을 받은 뒤 그해 '맏돌'이 수록된 앨범으로 데뷔했다. 1978년 1집의 '춤 추어요'를 크게 히트시켰으며 '당신의 첫사랑', '사랑' 등의 대표곡을 냈다.

또 1995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장수'라는 예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2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다. 일본 데뷔 첫해 일본유선방송 신인상을 받았으며,

2000년 발표한 '운명의 주인공'이 수록된 싱글은 25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2009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본명인 장은숙으로 바뀐 활동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춤 추어요'와 '당신의 첫사랑', '사랑', '영원한 사랑', '뭣이든' 등의 대표곡을 비롯해 '페임'(Fame), '콜 미'(Call me), '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팝송과 가요 명곡을 선사한다.

장은숙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 "꿈을 먹고 산다. 눈 감는 순간까지 꿈을 먹고 살다가 눈을 감을 것 같다. 하는 날까지 저는 꿈과 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노래를 위해서"라며 음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관람료 5만원, 문의 1544-1555.

유빈, '도시애' 저작권 문제 음원 발매 취소

일본 가수 다케우치 마리야의 '플라스틱 러브' 유사

원더걸스 출신 유빈(30)이 첫 솔로 음반 수록곡 '도시애' (愛)의 음원 발매를 취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JYP팬즈를 통해 "유빈의 첫 솔로 음반 '도시여자' (都市女子) 수록곡 '도시애' 관련 저작권 논란이 인지돼 발매를 연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곡의 발매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음반에는 타이틀곡 '속녀' (淑女)와 수록곡 '도시애' 등 2곡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음반 발매 전 티저 영상을 통해 공개된 '도시애' 음원 일부가 일본 가수 다케우치 마리야의 '플라스틱 러브' (Plastic Love)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이에 유빈은 지난 5일 '속녀'만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 뒤 '도시애'는 음원 발매를 미뤘으나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JYP는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난 5일 발매된 '속녀'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덧붙혔다.



'미스터 선샤인' 포스터 공개
올 하반기 최고 드라마 기대작
주역 5인방 개성 상징적 표현

올 하반기 국내 드라마 중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tvN 주말극 '미스터 선샤인'의 5인 5색 포스터가 7일 공개됐다.

이 포스터에는 각각 이병헌, 김태리, 유연석, 김민정, 변요환 등 주역 5인방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제작사 측은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5인방이 각자 운명대로 격변의 조선을 살아가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며 "19세기 초 가장 빼어난 근대사의 고해성사를 고스란히 전달하게 될 '미스터 선샤인' 속 5명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도깨비'로 케이블 시청률 역사를 쓴 김은숙 작가와 이은복 PD가 다시 만나 기대를 모은다.

작품은 신미양요 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인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오는 7월 7일 오후 9시 첫 방송.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뉴이스트W, 25일 8개월만에 컴백

그들 뉴이스트W가 오는 25일 컴백한다. 뉴이스트W는 7일 공식 팬카페에 올린 손편지에서 "약 8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JR(본명 김종현·23)은 "최선을 다해 멋진 음악과 무대로 러브(팬클럽)들이 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론(본명 곽영민·25)은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저의 마음을 생각하면 좀 오래 걸렸다. 대신 그만큼 노력했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호(본명 강동호·23)는 "선물 같은 앨범이 되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했고, 렌(본명 최민기·23)은 "컴백 무대에서 보게 될 러브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설

램을 드러냈다.

2012년 5인조 뉴이스트로 데뷔했던 이들은 지난해 아론을 제외하고 모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중 황민현(23)이 데뷔팀 워너원에 뽑히면서 나머지 네 멤버가 유닛(소그룹) 뉴이스트W를 결성, 지난해 10월 새 앨범 '더블유, 히어'(W, HERE)를 냈다.

뉴이스트W는 이 앨범으로 '2017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MAMA)에서 '디스커버리 오브 더 이어'(Discovery of the year) 상,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음반 부문 본상,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을 거머쥘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